

## 부품소재 5대 강국 2차프로젝트 가동

2009년 1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부품·소재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은 부품소재전문기업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되는 부품·소재 분야 범부처 국가계획으로서 지난 2001년 7월에 제1차 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 제2차 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을 심의 확정

제2차 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은 1차 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그동안의 대내외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06년) 부품·소재 세계시장 점유율 7위를 2012년 5위까지 끌어올려 부품·소재 세계 5대 강국에 진입한다는 비전 아래, 부품·소재 핵심 원천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90% 수준으로 제고하고, 부품·소재 무역흑자 9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8대 핵심 과제를 추진키로 하였다.

핵심 추진과제로 ①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100대 융복합 부품소재 핵심기술 확보, ②소재자원 확보전략과 연계한 미래선도 소재기술 60개 개발, ③세계시장 점유율 10%이상의 글로벌 부품소재기업 100개 육성, ④수요대기업과 납품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기반 강화, ⑤부품소재 전문인력 5만명 육성, ⑥수요자 맞

춤형 부품소재 정보·통계 기반 구축, ⑦50억불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부품소재산업 고도화, ⑧지역별 특화된 글로벌 공급기반 구축 등이다.

이번 계획이 제1차 계획과 차별화되는 주요 특징으로는 그동안 단기간내에 성과창출이 용이한 부품 위주의 상용화 기술개발에 치중하였다면('00~'08년 간 총 14,527억원 지원, 연평균 1,614억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1조 2,893억원을 투입하여(연평균 3,223억원), 녹색성장 등과 연계한 융복합 부품·소재 및 핵심 소재원천 기술개발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국내 소재(所在)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활용하는 지금까지의 국내 완결형 기술혁신에서, 해외 Set 기업, 소재(素材) 선진국의 대학, 연구소 등 해외 기술혁신자원과의 개방형 기술혁신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 상용화에서 녹색성장과 연계한 융복합 부품소재기술 개발에 주력

공급자 관점에서 장비 구축 등 하드웨어적인 부품·소재 인프라 구축에서 탈피하여, 부품·소재기업과 수요대기업이 함께하는 신뢰성 향상 지원 확대 등 소프트웨어적인 신뢰성 기반을 확충하고, 신뢰성 인증제도 민간 이양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부품소재 중소·중견기업이

‘강하고 돈되는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첨단분야(대일무역적자 주요 분야) 부품·소재 기술개발 수행시 기획, 수행, 완료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등 시장가치가 높은 지재권을 획득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올해에 총 3,287억원을 투입하여(전년대비 14%↑),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부품·소재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융복합 부품소재 및 핵심소재 원천기술개발에 총 920억원을 신규 지원하고(‘08, 700억원, 32%↑), 이 중 미국, 일본, EU의 선진 해외 Set기업이 참여하는 공동 기술개발에 별도로 100억원을 배정하여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 질적고도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기구축된 신뢰성 장비를 활용하여 고장문제해결 및 내구수명 향상 등을 지원하는 신뢰성기반 기술확산 사업을 확대하고(‘08, 139억원 → 244억원, 76%↑), 올해 7월, 그동안 정부인증체계를 기반으로 추진하였던 신뢰성인증을 민간으로 이양하여 기업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국제협력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해외선진기술 습득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소재원천기술 보유국에 인력파견을 신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일본, 미국의 글로벌 수요기업을 타겟팅하고 기술개발, 신뢰성, 기술제휴 등이 연계된 맞춤형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국, 일본, 중국 등 전략시장 개척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위상으로, 경제적 비중에서 부품·소재산업은 제조업 대비 생산·고용·수출의

40%이상을 차지한다.

	2001		2003		2007
* 생산액 비중(%)	39.3	⇒	39.6	⇒	42.5(추정)
* 고용 비중(%)	46.2	⇒	45.5	⇒	47.2(추정)
* 수출액 비중(%)	41.2	⇒	42.3	⇒	45.3

고용 유발 효과로는 완제품 산업에 비해 커, 제조업의 고용 창출을 주도한다. ‘01~’07년간 완제품 산업은 16만명 증가한데 비해 부품·소재산업은 전체고용이 20만명 증가했다. 무역흑자 기여도로는 ‘04년 이후 부품·소재 전체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는 증가해 ‘07년 순산업 흑자의 2배 이상 시현했다. ‘07년 하반기부터 전산업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에도 불구하고 부품·소재의 경우 규모는 줄었으나 소폭의 흑자 시현했다.

무역구조에서 무역수지 흑자 구성 품목도 범용위주에서 고부가가치로 전환한다. ‘03년 상위를 차지하던 화학·합성섬유, 비철금속 등이 하위로 이동, 액정표시장치,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등이 상위로 진입했다.

외국인 투자에서 부품·소재 외국인 투자유치는 최근 다소 줄었으나 제조업 대비 비중은 여전히 87%대 내외 차지한다. 그린 필드형 투자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특히 국내 디스플레이산업 투자 활성화에 따른 협력 외투기업 투자가 활발하다.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에 있어, 생산성에서 ‘04년부터 기술능력 등을 종합한 부품·소재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견고한 상승세를 유지한다.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부품·소재산업의 세계시장점유율은 ‘01년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여 ‘06년에는 30% 증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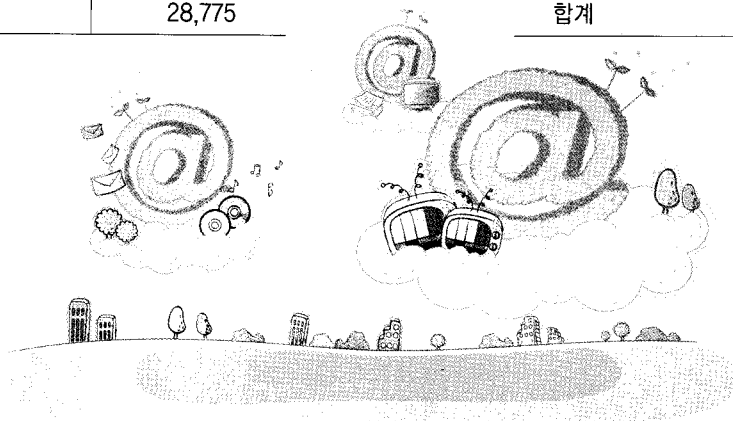
부품·소재 및 산업 무역 실적추이

(단위: 억불)

구분		'03	'04	'05	'06	'07	'08 (전년대비 증가율)
수출	부품소재(A)	820	1,079	1,238	1,487	1,682	1,837(9.2%)
	산업(B)	1,938	2,538	2,844	3,255	3,715	4,224(13.7%)
	비중(A/B)	42.30%	42.50%	43.50%	45.70%	45.30%	43.50%
수입	부품소재(A)	758	927	1,011	1,140	1,318	1,488(12.9%)
	산업(B)	1,788	2,245	2,612	3,094	3,568	4,356(22.1%)
	비중(A/B)	42.40%	41.30%	38.70%	36.80%	36.90%	34.20%
무역 수지	부품소재(A)	62	152	227	347	364	349(-4.0%)
	산업(B)	150	294	232	161	146	-132(-189.9%)
	비중(A/B)	41%	52%	98%	216%	248%	-

부품·소재 무역수지 흑자 상위 10대 품목 추이

2003년(백만불)		2007년(백만불)	
1. 메모리 반도체	9,278	1. 액정표시장치	15,244
2. 컴퓨터용 카드	4,138	2. 메모리 반도체	14,467
3. 합성수지	3,902	3. 합성수지	8,565
4. 화학섬유직물 직조	2,234	4. 기타자동차부품	8,272
5. 기타자동차부품	1,887	5.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7,319
6. 음극선관	1,682	6. 유기화합물	2,870
7. 합성섬유	1,642	7. 타이어	2,353
8. 기타 비철금속	1,556	8. 화학섬유직물 직조	1,623
9. 타이어	1,351	9. 합성섬유	1,619
10. 유기화합물	1,105	10. 기타합성수지	1,505
합계	28,775	합계	63,836



부품·소재 및 산업 무역 실적추이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석유화학소재	점유율	12%	12%	13%	13%	14%	14%
	지수	100	103	109	116	122	120
철강금속소재	점유율	12%	12%	13%	15%	14%	13%
	지수	100	101	116	126	118	114
소재소계	점유율	13%	13%	13%	14%	14%	13%
	지수	100	100	104	108	108	104
전기/전자부품	점유율	9%	10%	10%	11%	11%	12%
	지수	100	112	113	120	124	132
자동차/수송부품	점유율	3%	3%	4%	5%	7%	8%
	지수	100	115	161	198	250	279
부품소계	점유율	7%	8%	8%	9%	10%	10%
	지수	100	112	120	130	138	148
총합계	점유율	9%	9%	10%	10%	11%	11%
	지수	100	107	114	122	126	130

다. 무역특화 지수에서 '04년 이후 전 산업의 무역특화지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부품·소재산업은 상승세에 있다.

1차 계획의 성과와 문제점

제1차 계획의 정책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경쟁기반 부문 성과이다. 기술개발에서, '00~'07년간 총 1조 1,827억원을 투입, 글로벌 조달 잠재력이 큰 부품·소재 기술 발굴·지원했다. 민간 투자 및 수요기업과 연계된 기술개발 등으로 양호한 지원성과를 거양했다.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부품·소재의 기술수준은 2007년 기준으로 선진국 대비 91.2%이고, 부품·소재기업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은 선진국(미국=100) 대비 '01년 70.1%에서 '07년

87.0%으로 향상했다.

다만, 단기성과 창출이 용이한 부품 위주의 상용화 기술개발에 주력함으로써, 세계시장 선점형 “핵심기술” 지원기능이 부족했고, 특히, 소재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비중이 낮아, 첨단소재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75%에 불과했다. '07년 산업관련 R&D 예산 중 소재개발 비중은 7.7%에 불과했다.

대형화·전문화에서, 12개 부품소재 전문투자 조합 및 M&A 데스크 설립 등 제도적 지원이 있었다. 부품·소재 중핵기업(매출 1,000억원, 수출 1억불 이상)이 '04년 155개사에서 '07년 231개사로 확대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광범위하여 기업

규모별로 차별화된 지원이 부족하였고, 대형화를 위한 지속적인 자금조달 수단도 미비했다.

18개 신뢰성평가센터를 설립하여 기반 구축 마련

인프라 부문 성과에 있어, 신뢰성에서 18개 신뢰성 평가센터를 설립하는 등 부품·소재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을 마련했다. '03~'07기간 동안 516억원 투입, 497개 부품소재기업의 필드고장 해결, 1,982종의 평가장비 구축, 668종의 평가기준 개발 등이다. 하지만, 수요기업과 연계 부족으로 신뢰성인증 제품에 대한 내수 및 수출확대 등 실질적 성과 산출이 미흡했다.

인력양성에서 신뢰성 기술의 저변확대, 차세대 소재인력 확보 등을 위해 신뢰성 전문인력 및 소재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신뢰성에서 '02~'07년간 총 25,390명, 소재에서 '07, 2,439명이다. 다만, 산업현장의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고 체계적인 고급연구인력육성에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교육 프로그램이 5일 미만의 단기 교육과정에 그치고 있다.

부품소재분야 외국인 투자실적

글로벌화 부문 성과에서, 투자유치는 '04~'07기간 중 부품·소재 분야 총 83.6억불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총 외국인투자 유입액의 23.4%)을 냈다. 다만, 국내 수요 대기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Greenfield형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이 미흡했다.

수출촉진에서 KOTRA와 업종별 단체 등의 정보 전달기능을 강화하여 수출기회를 확대하고 수출증대에 기여했다. 기술개발 및 수요기업과 밀접히 연계되는 부품·소재의 마케팅 특성의 반영이 미흡했다. 대일 부품·소재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대일

수출 전략필요하다. 대일 부품소재 무역수지 적자(역불)는 ('00) △117 → ('07) △187이다.

수입선다변화 등 소극적국산화에서 적극적 육성정책으로 전환

시사점으로, 제1차 기본계획은 부품·소재산업 기술혁신, 사업화 촉진 등을 통해 우리 부품·소재산업 육성의 한 축을 담당했다. '90년대 후반까지의 수입선다변화 등 소극적 국산화 정책에서 탈피하는 적극적 부품·소재 육성정책으로의 전환점이다. 우리 부품·소재산업의 외형적 성장 및 질적 성장에 기여했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 이후 중간 점검 및 정책의 변화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방향성과 전략의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고부가가치형 첨단 부품·소재 영역에서의 원천기술력 확보 및 개방형 기술혁신 촉진하고, 중핵기업 육성을 위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인센티브제 구축하며, 대·중소기업 신뢰성 상생협력 확대 등을 통한 신뢰성 향상 성과 제고하고, 인력양성체제 개편으로 인력수급간 미스매치를 해소하며, 보다 적극적인 해외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기술력을 갖춘 해외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한다.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부처간 정책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력양성, 대형화·전문화 등은 관계 부처의 유기적 협력하에 이루어져야만 성공이 가능하다.

부품소재분야의 새로운 환경 변화

부품소재분야의 환경변화로는 우선, 동북아 국제분업 구도 변화와 FTA 시대의 도래이다. 대일 교역에서 부품·소재 수입특화를 보이는 가운데, 대중 교

역에서 기존의 비교우위 정도가 약화되는 샌드위치형 추세가 뚜렷하다. 對中 수출비중(%): ('00) 12.6→('07) 30, 對中 수입비중(%): ('00) 8→('07) 23.8이다. 동북아 국제분업 고도화 추세 속에서 기술수준 향상으로 일본 등 대선진국과의 교역에서 비교열위 완화가 필요하다.

FTA 추진과 세계화의 진전 과정에서 핵심기술의 확보를 위해 글로벌화를 활용하고, FTA로 확보된 통상 유연성을 활용하여, 글로벌 Set대기업과 국내 부품·소재 전문중소기업의 협력을 강화한다.

### 부품·소재의 융복합화가 확산되면서 핵심기술형

#### 부품의 중요성 증가

부품·소재산업의 융복합화 현상이다. 부품·소재의 융복합화가 확산되면서 시스템 IC, 임베디드 SW, 등 핵심기술형 부품의 중요성 증가한다. 주요 융·복합화 제품으로 IT-BT는 질병 모니터링, 원격진료, BT-NT는 생체의약품 개발, 생체진단(나노바이오 센서), IBNT는 유전자 검색 및 임상진단용 반도체칩 형태의 소자(DNA 칩, 단백질 칩, 세포 칩 등) 등이다.

IT 기술의 확산으로 융합 부품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가속화한다. IT+자동차, IT+화학/소재(차세대 태양전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등), IT+기계(지능형 생산시스템 등), IT+의료, 나노+바이오(바이오-나노 센서 등) 등에서 우선적인 유망사업 기회가 발생할 전망이다.

가치사슬의 분화와 글로벌 소싱의 확대이다. 대기업들이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비전문 사업분야를 분사화하거나 매각하면서 가치사슬의 분화가 가속화한다. 분야별로는 컴퓨터와 전자제품이 34.6%로 부

품·소재에 있어 가장 많은 글로벌 아웃소싱을 시행한다. 부품·소재기업 및 조립업체간에 공급망의 효율화와 협력적 공급망의 구축을 확대한다.

### 신기술개발 위험, 제품수명주기 단축으로 전략적 기술제휴가 증가

Set 기업과 부품·소재기업간의 전략적 제휴 강화한다. 신기술개발의 비용과 위험이 증가, 기술과 제품수명주기가 단축되면서 Set 기업과 부품·소재기업간 전략적 기술제휴가 증가한다. 최근 Set기업들은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개발과 시장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발굴한다.

불확실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Set기업-부품·소재기업간에는 장기 전략적 파트너십 및 단기 협력이 확대한다. 공동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이유는 신기술 개발 비용이 증가하면서 대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기 보다는 주요 협력 업체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책환경의 대두이다. 기후변화·자원고갈 위기를 새로운 성장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녹색성장이 新국가발전패러다임으로 대두한다. 그린에너지산업 주요 분야로,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 전지, IGCC(석탄가스화 복합발전), 청정연료로는 CTL(석탄액화) 및 GTL(가스액화), CCS(CO2 포집, 저장), 고효율기기로는 LED, 전력IT, 에너지저장, 소형열병합, 히트펌프, 초전도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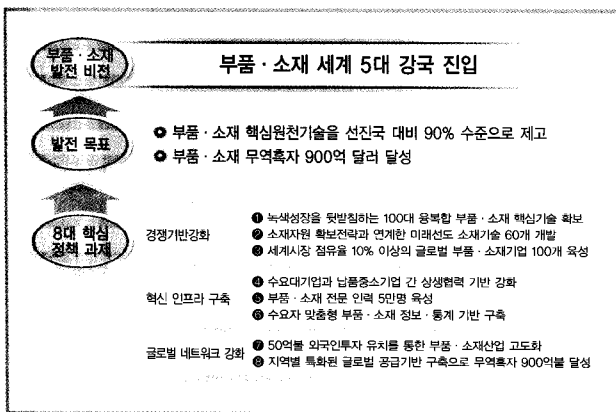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그린수송시스템 등 범부처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발굴 등이다.

**대응방향으로 대일 무역수지의 확대 균형을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

대응방향으로는, 부품·소재 대일 무역수지의 확대 균형을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하다. 품목별 특성과 기술개발 소요기간에 따라 차별화된 R&D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단기로는 지역혁신기술개발, 중기혁신기술개발, 단독주관부품소재기술개발 등이고, 중장기로는 공동주관부품소재기술개발,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 등이다. 투자유치 대상품목을 중심으로 “그린필드형” 투자를 유도하고, 각종 정책자금의 우선 지원 및 부품소재 전문펀드 등의 투자를 확대한다.

지식·기술 주도형 성장패턴으로의 전환에 따라 부품·소재산업의 실질적인 구조고도화를 추진한다. 기술개발은 단순한 sector별 접근방식보다는 sector별, value chain별 매트릭스에 의한 차별화된 접근이다. 개방형 기술혁신체제 구축을 통해 지원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이다.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등 여타의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이다. 녹색성장으로 그린에너지 분야 9대 전



략기술 분야 부품·소재를 집중 육성한다. 그린에너지 9대 전략기술로 (1그룹) 태양광, 풍력, LED, 전력 IT, (2그룹) 수소연료전지, 청정연료, 석탄가스화 복합 발전,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에너지저장 등이고, 기술개발, 산업화 및 보급촉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신성장동력으로, 신성장동력 육성시 부품·소재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한다.

제2차 부품소재 발전 기본계획 정책방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발전비전은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 7위에서 '12년 세계시장 점유율 5위로 부품소재 세계 5대 강국 진입이다.

**2차 계획에서는 부품소재 5대강국 진입이 발전비전**

발전목표는 R&D 지원체계의 개혁 및 효율성 제고와 소재산업의 새로운 기술개발체제 구축으로, 부품소재 핵심 원천기술 수준을 '12년까지 선진국 대비 90% 수준으로 제고하고, 지역별 특화된 시장개척 전략과 수입대체형 투자유치 확대로 부품소재 무역흑자를 '12년 900억 달러 달성한다.

핵심정책과제로 첫째,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100대 융복합부품소재 핵심기술 확보이다. '09~'12년간 총 8,953억원을 투입, 녹색성장, 신성장동력과 연계된 유망 융합부품소재 기술 개발이다. 녹색성장, 신성장동력사업 등을 통해 개발 예정인 시스템에 대해 연계소재 품목을 발굴하고 소재전문가의 시스템개발위원회 참석 의무화 등이다.

글로벌 분업구도 고도화를 위한 특화 분야에 전략적 R&D 지원이다.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주요 수입품목을 중심으로 단·중·장기 R&D가 필요한 품목을 발굴·지원하고, 중국 등 후발주자와의 전략

적 관계 강화를 위해 업종별 유망분야를 선정하고, 핵심 부품·소재기술을 발굴·지원한다.

###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100대 융복합부품소재 핵심 기술 확보

부품·소재 기업과 대기업의 공급-수요 특성을 반영한 개방형 혁신 지식 거래 모형의 개발 및 시스템화이다.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 및 생산시스템에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플랫폼기술 개발 및 보급하고, 국내 수요기업에 한정된 공동기술개발을 해외 수요기업으로 확대한다.

기술기획에서 사업화까지 연계된 전주기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이다.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민간 투자 유치, 기술금융 지원 및 특허화 사업 지원이다. 시장가치가 높은 지재권을 획득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한다.

부품소재 중소·중견기업이 '강하고 돈되는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재권(IP)-연구개발(R&D) 연계」 지원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부품소재 분야 국가 R&D사업에 대해 특허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파견하여 국가R&D의 효율성 제고하고, R&D특허센터의 IP상담 기능을 강화하여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지재권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한다.

둘째, 소재자원 확보전략과 연계한 미래선도 소재 기술 60개 개발이다. 소재분야에 대하여 실용화까지 10년 동안 과제당 매년 20억원의 자금을 지원('09~'12 동안 총 3,940억원)한다. 국가 소재 관련 R&D 예산 중 소재 지원비중을 '07년 7.8%에서 '12년까지 15%로 확대한다.

국방소재의 개발단계 및 군장비 운용단계 각각에서 소요되는 소재 기술과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체계 수립한다. 소재개발을 위한 자원확보에서 R&D 및 사업화까지 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한다. 소재기관 및 전문가를 통해 정기적으로 "자원·원료 확보 로드맵" 구축 및 에너지 자원정책과 연계강화한다. 소재 원재료와 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협력강화한다. "소재 종합 솔루션 센터"를 설립하여 소재물성 DB, 연구개발성과정보, 특허정보, 시장정보 등 종합적인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 소재자원 확보전략과 연계한 미래선도 소재기술 60개 개발

삼, 세계 시장 점유율 10% 이상의 글로벌 부품·소재기업 100개 육성이다. 부품·소재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M&A, 기술·자본 제휴, Joint Venture 설립 등 해외진출전략 수립 지원한다. 소재기관 및 전문가를 통해 정기적으로 "자원·원료 확보 로드맵" 구축 글로벌 M&A데스크를 통해 '12년까지 매년 30개, 총 150개 유망부품소재기업을 발굴하고 해외 기업 인수 합병 등 해외 진출 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부품소재 글로벌 펀드"를 설립하여 부품소재기업의 해외진출전략 실현을 위한 투자를 선도하도록 유도한다.

부품·소재 기업의 대형화 유도를 위해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 마련한다.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부품소재기업들에게 적합한 별도의 R&D 프로그램 개발하고, 국내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활성화하여 국내 부품·소재기업 간 M&A 등에 지속적 투자를 유도한다.



세계 시장 점유율 10% 이상의 글로벌 부품·소재기업 100개 육성

넷, 수요대기업과 납품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수요대기업이 신뢰성연구기관과 협력하여 부품·소재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신뢰성상생협력 사업 확대·강화한다. 신뢰성향상사업의 패러다임을 부품소재기업 제품인증 중심에서 수요기업의 요구기준과 연계를 강화한다. 신뢰성인증제도는 민간으로 이양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2014년까지 신뢰성센터의 자립화 기반 마련한다.

현재 나노소재분야의 장비 구축에 한정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을 신소재분야의 사업화 前단계에 필요한 평가 및 공정개발용 장비 구축으로 확대한다. 대일무역역조 주요소재 및 신성장동력 시스템 연계형 소재에 집중한다.

수요대기업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과장급 이상 인력의 협력 부품·소재 업체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중견인력 활용제도'를 확대한다. 노동부 중견인력 활용제도 예산(억원)은 ('07) 384 → ('08) 611이다. 수요대기업과 부품소재 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수요연계형 R&D 사업"의 규모를 확대한다. 수요연계형 R&D 사업규모(억원)는 ('08) 940 → ('09) 1,070이다.

부품·소재 전문인력 5만명 육성

다섯, 부품·소재 전문인력 5만명 육성이다. 부품·소재 인력수요 현황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한다.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등 8대 업종에서 매년 1만명 내외 교육한다. 소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고급인력 양성 및 해외연수 추진한다. '09년부터 소재

강국의 우수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다.

산업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전문기술교육 추진한다. 18개 신뢰성평가센터를 비롯한 기구축 인프라를 (설계검증 S/W 등 1,982점의 장비 등) 교육·실습장비로 활용, 이론과 실무를 병행하는 전문기술교육 추진한다.

여섯, 수요자 맞춤형 부품·소재의 정보·통계 기반 구축이다. 부품·소재 정보를 유기적 네트워크로 연결한 부품·소재 포털 정보 지도 구축한다. 전 제조업에 걸쳐 무수히 흩어져 실시간으로 흐르는 부품·소재 정보를 유기적 네트워크로 연결한 부품소재 포털 정보 지도를 구축한다.

정보제공서비스가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Bottom-up 방식으로 전환한다. 지식정보 포털내 정보나눔의 장을 마련하여 정보수요자 트렌드를 수시로 파악하여 반영하는 쌍방향성 정보흐름 체계 구축한다. 통계 서비스 범위를 응용통계·생산통계 등으로 다양화하고, 국내외 동향에 대한 심층 분석 등 고급통계 서비스 강화한다.

수요자 맞춤형 부품·소재의 정보·통계 기반 구축

일곱, 50억불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부품소재산업 고도화이다. 국내 수입규모가 큰 부품·소재 분야를 우선적으로 선정, 수요대기업과 투자유치 기관간 공동 투자유치 노력을 전개한다. 국내 대기업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나 향후 외주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품소재 분야를 우선 투자유치 대상 분야로 선정, 부품소재 전용공단을 4~5개 조성하여 일본 등의 핵심기술 보유기업 투자유치를 촉진한다.

부품·소재 글로벌 기업들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개설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한다. 글로벌 제조업체 중 우리나라에 아직 진출하지 않았거나 진출했어도 사업규모가 미미한 상태에 있는 부품소재 전문기업을 발굴, 상설 연락 창구를 개설한다. 글로벌 투자자와 국내 유망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정보 DB를 구축하여 상시적인 연계 서비스 제공한다.

끝으로, 지역별 특화된 글로벌 공급기반 구축으로 무역흑자 900억불 달성한다. 국내부품소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미국, 일본의 수요대기업을 선정, R&D단계에서부터 공동개발 지원한다. '12년까지 매년 3개사의 글로벌 수요기업을 선정하여 R&D 단계에서부터의 공동개발(co-develop)을 통한 글로벌 아웃소싱을 추진한다.

#### 지역별 특화된 글로벌 공급기반 구축으로 무역흑자 900억불 달성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진출지역별 특화된 시장개척 지원한다. 중국 시장의 부품소재시장상황, 유통구조,

관세 및 비관세장벽 분석을 바탕으로 30대 수출 전략 품목을 선정하여 수출 지원한다. 동북아 3국의 조립기업과 부품 및 소재 기업으로 구성된 '동북아부품소재기업교류회'를 구성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한다. 엔화 강세를 활용하여 대일유망 수출품목을 선정, 전략적 시장개척 지원 강화한다.

국내 진출 외국 조립 및 부품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내 부품 소재기업 설명회 수시 개최한다. 국내 진출 외국기업의 연구개발 담당자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국산 부품 소재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